

2월28일(월)/고후 3:1~11 (2)

**제목: 새 것에 마음을 엮시다.**

바울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성령의 법을 대비하였다. 이들의 차이는 극명하다. 돌 판에 새겨진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6절).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물론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그 얼굴에 찬란한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 율법의 심부름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7절).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면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8~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 언약인 율법을 택했다. 그리고 새 언약인 성령의 법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최선이 왔는데도 차선을 선택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여전히 옛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은 옳은 것이고 그동안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영광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회와 크리스찬은 항상 흥분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모험을 준비해야 한다.

3월1일(화)/고후 3:12~18

**제목: 눈을 고정시킵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빛나던 그의 얼굴의 영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3절). 여기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옛 언약, 즉 율법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14~15절). 구약의 말씀들은 그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건을 계속 쓰고 있으므로 그 진리를 보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있는데도 말이다(16절). 바울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면 그분의 형상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18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그를 닮는다는 것이다. 마치 인기스타를 숭배하면 그의 옷 모양, 머리모양, 그의 몸짓을 흉내 내듯이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항상 고정하면 그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이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즉 그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3월2일(수)/고후 4:1~6

**제목: 유독 안 믿는 자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비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다고 자부하였다(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이라고 하였다(3절).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4절). 즉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드리는 자는 그 자신이 스스로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유독 심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칠 정도로 마음 문을 닫아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침부해야 할 기도가 있다.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전도와 함께 항상 병행해야 한다.

3월3일(목)/고후 4:7~15

**제목: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

예수를 믿는 자는 보배를 가진 자이다(7절). 그 보배, 즉 복음은 깨질 위험이 있는 질그릇에 담겨있다. 바울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특권을 잘 알고 결코 우쭐대지 말라고 한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였다.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짓눌려도 찢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 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8~9절). 보배를 가진 자도 죽음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때도 그 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고 있다(10~11절).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역설이다. 복음을 가진 자도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도 경험한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14절). 복음을 가진 자도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15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도 우리에게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이 언제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이른다.

3월4일(금)/고후 4:16~18

**제목: 늙어 갈 수록 새로워지는 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보배)을 가진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겉사람은 늙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특징이 있다(16절). 둘째, 이 땅에서 겪는 일시적인 고난 보다 저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17절). 셋째,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18절). 사람은 일생을 통해 외모는 늙어가고 육신의 힘은 쇠약해진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영혼은 힘을 얻고 새로워진다. 세월이 흐를수록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덜해 가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은 더해 간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해마다 한 살씩 먹어가지만 그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다음 세상에서 누릴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다음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지워야 한다. 크리스찬이 나이를 먹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여행길이 되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